

아오누마 늪 (고시키누마 호소군)

아오누마 늪(靑沼, 파란 늪)은 1888년에 반다이산이 분화했을 때 일어난 사면 붕괴로 인해 강이 막혀 형성된 약 30개의 다채로운 색을 띠는 얇은 늪과 습지로 구성된 고시키누마 호소군 중에서도 가장 색이 선명한 늪 중 하나입니다.

아오누마 늪의 깊은 파란색은 여름의 녹음과 가을의 단풍으로 한층 더 아름답게 반짝반짝 빛납니다. 늪 위에 올라온 식물이 물에 잠기면 서리가 내린 것처럼 보이는데, 이것은 분화 시 물속에 퇴적된 산성 화합물인 규산알루미늄의 얇은 막이 식물을 뒤덮고 있기 때문입니다. 규산알루미늄은 고시키누마 호소군의 다른 늪에도 존재하지만 아오누마 늪만큼 농도가 높지 않습니다.

이 늪은 플랑크톤이나 어종이 서식하기에는 산성도가 너무 높지만, 늪 바닥에는 완스토피아 플루이탄(학명: *Drepanocladus fluitans*)이라는 이끼가 광범위하게 자라고 있습니다.